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81-85,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81

유아교육 관련 교재교구 산업의 과제와 전망

김규수[1*]
[1]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outlook and challenge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Kyu-Soo Kim[1*]
[1]**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 관련 교재교구 산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다. 교재교구 산업의 과제는 첫째, 분류기준 제시가 시급하다는 것, 둘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넷째, 상품화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교재교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다는 것과 여섯째, 교재교구의 활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곱째, 교재교구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재교구 산업의 전망은 첫째, 평가인증 제도의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교재 교구산업이 성장 할 것 이라고 보는 시사점과, 셋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소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넷째, 멀티미디어 사용이 증가되며. 다섯째로 활용률 제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교재교구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llenges and outlook of textbook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1. The challenge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First, classification criteria are needed. Second, Evaluation Standard are needed. Third, quality control is needed. Fourth, ready-made products are insufficient. Fifth, economic policy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is required. Sixth, manage system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s necessary. Seventh, distribution system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should be reformed.
2. The outlook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First, accreditation system will be introduced. Seco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will develop continually. Third, eco-friendly and sustainable system will be built. Fourth, multimedia industry will be extended. Fifth, managing system to enhance usage rate will be settled.

Key Words :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복지수요의 팽창에 걸맞는 국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개발하여 유치원 현장에 보급해 왔으나, 그 동안 유치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재교구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는 없었다. 즉 유아교육 교재교구 관리 및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성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교구의 다양성과 질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교재교구의 연구제작보급 사업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위한 것

*Corresponding Author : Kyu-Soo Kim(Wonkwang Univ.)
Tel: +82-10-6808-6425 email: kikiki@wku.ac.kr
Received September 27, 2013 Revised October 28, 2013 Accepted January 9, 2014

이었으며,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제작보급 사업은 한국어린이교육협회, 유아교육협회 등이 주최한 강습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1981년 문교부(현재 교육부)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촉하여 유아를 위한 그림책과 교사가 유아에게 제시할 그림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 이들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 지도 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의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제작과 보급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제작보급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실제로 접하고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물리적 환경 중의 하나인 교재교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교재 교구란 교수-학습의 매체로서 교과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유아들의 학습은 교재 교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종류와 활용성을 고려하여 교재와 교구를 분리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재교구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재교구 산업에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2. 본론

2.1 교재교구산업의 발전과정

19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교재교구의 연구제작보급 사업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위한 것이었으며,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제작보급 사업은 한국어린이교육협회, 유아교육협회 등이 주최한 강습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1].

1981년 문교부(현재 교육부)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촉하여 유아를 위한 그림책과 교사가 유아에게 제시할 그림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 이들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 지도 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의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제작과 보급이 시작되었다[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제작보급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실제로 접하고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물리적 환경 중의 하나인 교재교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2009)의 완구류 유통 및 소비실태조사에서 보면 유아용 완구류가 고가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적 기능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지 형태의 학습활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과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교재교구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 안에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도입은 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시행 이전에 충분한 연구를 통한 지표와 절차 개발, 시범 적용을 통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과 추진일정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 지표와 절차 개발 및 시범 적용('13~'14)
-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4)
-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제 실시('15~'17)

2.2 교재교구 산업의 과제

교재교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당면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1 분류체계가 시급하다

교재교구가 다양하므로 이를 제작하고 선정하는데 있어 분류기준 등 분류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분류체계에는 연령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운동패턴이나 사용하는 근육에 따른 분류 등이 있다. Yawkey와 Trostly(1982)는 놀이를 통해 유아의 성장을 최대한 이끌기 위해 놀이자료의 종류를 균형있게 분류하는 종합적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체계는 자료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교수자료(instructional materials), 실물자료(real materials), 구성자료(constructional materials), 장난감(toys) 등이다.

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어사용도 문제이다.

교재교구, 념체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료(instructional materials)는 특정기술과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놀이 자료보다 더 교수적이며 구조적이고 결과 지향적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학습한 기술들은 과학, 사회학이 포함된 모든 영역의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교수자료에 내포될 수 있는 기술과 개념교육자료, 교육매체, 놀잇감 등에 대한 명확한 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분-전체 관계 이해하기
- 신발끈 묶기와 같은 자조기술 습득하기
- 색깔 식별과 색이름 학습하기
- 크기 순으로 배열하기
- 1:1대응 이해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 분류의 놀이 자료에는 퍼즐, 쌓기 장난감, 끈에 구슬 꿰기, 구멍에 끼우기, 분류게임,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이러한 교수자료는 외국의 경우에는 제품화가 많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사는 필요한 자료를 의도에 따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물자료(real materials)에는 모래, 진흙, 물, 점토, 음식, 나무, 목공놀이도구, 여러 가지 성인의 옷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유동성이 있으며 자기-동기유발적(self-motivating)이기 때문에 훌륭한 놀잇감이 된다.

구성자료(constructional materials)는 유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용법을 지니고 있는 자료와는 달리 가능한한 많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레고 등의 블록 종류가 속한다.

장난감(Toys)은 유아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물체의 축소형 복제물이다.

이러한 자료는 유아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꿉놀이를 위한 장난감(인형, 인형장신구, 부엌용품, 다리미, 빗자루 등), 운동기관 장난감(기차, 자동차, 배, 트럭 등), 생물체 장난감(사랑, 동물, 우주인 등)등이 있다.

2.2.2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재 교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훌륭한 교재, 교구라 할지라도 그 교구를 사용하게 될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다면 좋은 교재, 교구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유니트 블록이 좋은 놀잇감이나 만 2세반 유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2세 유아들에게는 몇 개만 쌓아도 근사한 구성물이 되는 스펀지 블록이나 할로우 블록들이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교재, 교구를 선정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개되는 주제에 적합한지 교재, 교구를 활용하는 동안 또는 활용한 뒤 유아들에게 유익하고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3]. 그러므로 어떤 주제를 전개할 때 사용하면 좋은 교재, 교구인지, 교재, 교구를 활용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교육활동 전개 시 유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오래 쓸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재, 교구는 반마다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한 반에서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하다 부서지거나 쉽게 고장 나는 교재, 교구는 구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교재, 교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튼튼하게 만들어 쉽게 부서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넷째,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특히 교구의 경우 유아가 놀이하는 동안 놀잇감을 탐색하여 새로운 놀이로 발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한다. 매력적이고 교육적인 교재, 교구라 할지라도 유아들의 놀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구입하면 안 된다. 나무로 제작된 교재, 교구의 경우 표면처리가 매끄럽게 되어있고,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은 것이 좋으며, 페인트가 칠해진 경우 무독성 페인트로 칠해졌는지, 칠이 손에 묻어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입하며 부서질 경우 조각들이 위험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여섯째, 매력적인 것을 구입한다. 유아들은 매력적인 교구를 좋아한다. 아무리 교육적인 교구라 할지라도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없는 교구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색깔, 모양, 크기, 촉감 등이 유아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교구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교재 교구에 대한 평가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화되어 교재 교구의 제작과 활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2.2.3 질 관리가 허술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재교구의 다양성과 그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4].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 선택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교구의 보급과 활용에서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해한 자료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2.4 상품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박란규의 연구[5]에 의하면 대전시 우수 공사립 유치원 10곳을 대상으로 교사에게 교재교구 만족도를 평가해 본 결과 '보통'으로 조사되었으며, 상품화된 자료보다 교사가 제작한 자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 현장에서 폐품을 이용한 교구, 놀잇감 제작은 교재 교구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양질의 교재 교구를 보급하려면 교재 교구의 상품화가 요구된다.

2.2.5 교재교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다

유아용 교재교구를 생산하는 기업은 영세하며 시장의 반응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6]. 따라서 교재교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2.6 교재교구에 활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는 도서를 제외하고도 1400여종에 달한다. 이렇게 다양한 교재교구가 제대로 활용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2.2.7 교재교구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백화점에서 점차 유아용 교재교구 판매대는 매장 맨 구석으로 밀려나는가 하면 일반 상가에서는 유아용 교구재 매장은 사라지고 있다. 시판교구가 설자리를 잃은 이유는 우선 유아교구 업체의 방문판매에서 찾을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재교구가 현장에서 활용되게 하려면 자료를 직접 사용하는 교사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원장이 자료 선택을 하게하면 리베이트가 따르는 자료가 더 많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2.3 교재교구 산업의 전망

교재교구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재교구 산업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2.3.1 평가인증 제도의 도입

질적으로 우수한 교재교구가 보급되고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재교구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제품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고 제작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있다면 교재교구 선택과 활용에서 불필요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 필요한 교재교구에 대한 보편적인 인증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교구는 상당히 방대하므로 몇 가지 종류로 유목화하여 중요도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초기에는 인증된 교재교구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며, 인증된 교재교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인증된 교재교구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3.2 교재교구 산업의 성장

교재교구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됨으로써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이 따르고 상업화된 자료의 수요가 확대되면 교재교구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3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소재 확대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오염이 심각해지며 친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건강에 유해하거나 탄소배출량을 증대시키는 소재와 작업환경은 많은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성이 큰 소재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4 멀티미디어 사용 증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 기기 등과 연결된 교재교구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교사 도우미 로봇 아이로비Q와 제니보 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보아도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 사용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5 활용률 제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정착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자료의 제작과 활용에 관련된 각종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므로 인해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교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관, 보수,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유아용 교재교구 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민간 업체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교재교구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재교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이로 인한 실제적인 교육과 보육 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7]. 교재교구의 질적 편차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편차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민간업체의 홍보를 통해 원장과 교사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교재교구를 구입하며,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교재교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교재교구가 구입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학부모의 친환경 교재교구의 요구가 많아지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 교재교구 산업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교재교구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됨으로써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이 따르고 상업화된 자료의 수요가 확대되면 교재교구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재교구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재 교구가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재 교구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교재 교구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교재 교구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교구 생산과 소비 주체들의 인식과 요구를 폭넓게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1] A. H. Yoon. and G. M. Park,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Daumsaedae, 1997.

[2] M.O.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ment plan policy research 5 years. 2013.

[3] E. Y. Kim, J. K. Kim, K. S. Choi, W. J. Cho, H. J. Cho, and J. Ann, A Study on Developing Facility Standard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valuation Authentication Guideline for Day-care Cent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5] R. K. Park,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play materials in kindergarten by age, theme and interest center. MS Thesis Paichail University, 2005.

[6] Y. M. Shim, Analysis on Educational Materials of Toddler Classes in Child Care Center. M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12.

[7] S. J. Yoom,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eaching Material and Tools Management Program for Kindergartens. M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2.

김 규 수(Kyu-Soo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중앙대학교 중앙대학원 유아교육학 (문학석사)
- 2002년 2월 : 중앙대학교 중앙대학원 유아교육학 (문학박사)
- 1982년 2월 ~ 1986년 6월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 199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론, 장학론, 아동발달